

# ‘말걸기’로서의 인터뷰 다큐멘터리 제작 방안 연구

## - 정신분석학적 방법을 중심으로

한귀은\*

1. 서론
2. 상징계적 소통의 의의와 한계
3. 말걸기로서의 인터뷰 다큐멘터리
4. 인터뷰 다큐멘터리 제작 방안 및 작품 해석
  - 4-1. 차시별 활동 및 제작의 주안점
  - 4-2. 작품에 대한 정신분석적 해석
  - 4-3. 참여자 반응 분석
5. 결론

### 국문초록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의사소통은 끊임없는 누빔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 이 누빔점 설정은 상징계적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 그러나 이 소통의 성공은 실재계적 차원을 억압하면서 이루어진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소통의 한계를 보완하는 실천적 차원으로 ‘말걸기’를 제시하고, 이 말걸기의 경험을 인터뷰 다큐멘터리 제작이 줄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말걸기로서의 인터뷰 다큐멘터리는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자간 대화가 아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시선’ 주체인 (잠재적) 시청자와 ‘응시’의 주체인 실재계의 ‘무엇’이 공존한다. ‘시선’은 자아이상과 완벽

---

\*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한 소통을 지향하게 만들지만, '응시'는 실재계적 징후를 환기시키며 대타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이 때문에 인터뷰는 매끄럽고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바로 이 점이 '말걸기'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말걸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윤리적 신중함과 재맥락화를 필요로 하는 소통방식이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인터뷰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말걸기의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소통의 실재계적 측면이 환기됨과 동시에, 여러 교육과 소통의 장에서 학생이나 일반인이 인터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봄으로써 '말걸기'로서의 소통의 중요성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주제어: 인터뷰 다큐멘터리, 말걸기, 정신분석학, 실재계, 응시)**

## 1. 서론

S1과 S2가 대화할 때 소통은 S1, S2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S1, S2는 각자의 대타자(A)에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이 대타자를 매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S1, S2의 대타자는 결국 같은 방향에 놓여 있는 동일한 이데올로기이자 환상은 아닐까. '정확한 의사소통'이란 대타자를 만족시키는 소통이며 의사소통에 성공했다는 것은 결국 주체의 소외(\$)와 더불어 일어나는 오인작용은 아닐까.<sup>1)</sup>

편지는 늘 수신자에게 도착한다. 문제는 그 수신자가 '대타자'라는 것에 있다.<sup>2)</sup> 대타자는 주체의 환상에 의해 유지되는 상징계(the Symbolic)의

---

1) 대타자는 종교적·이데올로기적 대의의 위상을 갖는다. 개인은 자신이 대타자에 속해 있다고 믿으면서 존재론적 기반을 갖게 되고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참조점으로 삼는다 (슬라보예 지젝, 『HOW TO READ 라캉』, 박정수 역, 웅진지식하우스, 2007, 21쪽).

가상적 존재다. S1은 S2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지만, 그 편지는 대타자에게로 부쳐진다. S2에게 온전히 도달하는 편지는 부치지 않은 편지뿐이다.

대타자를 매개로 한 소통은 상징계적 소통이다. 상징계적 소통은 누빔점(le capiton)이 형성되면서 이루어진다. 이 누빔점을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 대화적 타협을 가능케 한다.<sup>3)</sup> 문제는 이 누빔점은 불안정하고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가상적 대타자를 만족시키는 소통, 누빔점을 적절히 형성하며 나아가는 소통은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정신분석학적 차원에서 소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up>4)</sup> 언어소통 교육 분야에도 정신분석학적 방법론이 도입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 연구들이 단지 원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구체적인 교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징계로의 진입을 위해 동일화(identification)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한 연구<sup>5)</sup>, 읽기를 지속시키는 욕망이 상징계적 읽기가 남기는 잔여라는 것을 논의한 연구<sup>6)</sup>, ‘쓰기’를 지속시키는 증상으로서 불안을 연구한 것<sup>7)</sup>,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학생이 쓴 ‘자기 성찰적 서사’를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한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sup>8)</sup>

2) 슬라보예 지젝,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 주은우 역, 한나래, 1997, 46쪽.

3) 자크 라캉, 『에크리』, 조현준 외 역, 새물결, 2019, 277-379, 948쪽.

4) 라캉 또한 『에크리』 4부에서 ‘정신분석에서의 말과 언어의 기능과 장’과 ‘정신분석과 정신분석 교육’을 논의하고 있다(자크 라캉, 위의 책, 519-546쪽).

5) 박효진, 「텍스트 타자와 독자 주체의 소통 - 동화 읽기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 13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22, 219-245쪽.

6) 김도남, 「라캉의 욕망 이론과 읽기 교육의 문제」, 『국어교육학연구』 제24권, 국어교육학회, 2005, 125-160쪽.

7) 전제웅, 「초등학생의 쓰기 불안 해소를 위한 쓰기 지도 방안 연구-정신분석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제22권, 한국작문학회, 2014, 179-199쪽.

8) 이인표, 「자기 성찰적 서사의 정신분석을 위한 고찰」, 『문학교육학』 제81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23, 131-165쪽.

언어소통에서 정신분석학의 도입이 주로 읽기와 쓰기에 집중돼 있다 면) 좀 더 원론적인 차원에서 라캉의 언어관을 전제로 한 연구도 있다. 언어는 사회, 문화, 법을 규정하는 도구이며, 대타자의 담론은 상징계를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상징계적 언어가 어떻게 자아이상 및 주체화와 관여하는가 논증한다든지<sup>10)</sup>, ‘아버지의 법’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라캉의 언어관이 가정교육에 시사하는 점을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sup>11)</sup>

이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상징계적 차원에서 교육 방안을 제시하거나 소통의 특징을 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재계(the Real)가 간과되고, 상징계적 소통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따른 증상을 상상계적인 것(the Imaginary)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상징계적 교육의 상황 속에서 규칙과 규범에 대한 부적응이나 저항을 상상계적인 자아동일화나 퇴행으로 간주하는 것이다.<sup>12)</sup>

9) 문학 교육을 위한 방법론으로 정신분석학을 도입한 연구도 있다(박용우, 「반응의 차이 공유를 통한 시 감상 소통 수행 양상 - 누빔점(Quilting Point)을 통한 의미 생성을 중심으로 -」, 『새국어교육』 제12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21, 181-214쪽; 유리, 「욕망의 소설교육적 의미 탐구」, 『국어문학』 제64권, 국어문화회, 2017, 213-241쪽; 이근영, 「학습자의 욕망 발견을 위한 초등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70호,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21, 171-190쪽).

10) 이동성, 「정신분석과 언어 : 라캉이론을 중심으로」, 『동서언론』 제15집, 동서언론학회, 2012, 67-89쪽.

11) 김영철, 「라캉의 언어사회화론 탐색: ‘아버지의-이름’이 가정교육에 주는 시사점」, 『교육인류학연구』 제8권 1호, 한국교육인류학회, 2005, 1-38쪽; 이철, 「탈가부장 시대의 자녀 교육 문제와 아버지의 역할: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제51권,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6, 187-217쪽.

12) 김도남은 상징계적 독자가 의미 구성에 있어서 통합되지 않는 부분을 밀어내게 되는 데, 이때 밀어낸 의미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항상 만족을 주던 상상계적인 향수를 느끼게 되고 이 때문에 읽기 욕망이 지속된다고 말한다. 상징계적 독서의 틈이 상상계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는 관점인 것이다(김도남, 「라캉의 욕망 이론과 읽기 교육의 문제」, 『국어교육학연구』 제24권, 국어교육학회, 2005, 143-144쪽).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

상징계적 차원에만 한정돼 소통이 이루어질 경우, 실재계적인 측면은 억압되고 이것은 부적응이나 무능력, 불통의 장애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상호 소외, 상호 오해를 낳을 위험도 발생한다.<sup>13)</sup> 상징계적 차원에서 언어는 재현, 표상, 의미화 시스템에 작동하는 것이라면, 그 상징계에 포섭되지 못하는 실재계적인 측면은 소통에 있어 또 다른 작용을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주체는 실재계에 온전히 접근할 수는 없다.<sup>14)</sup> 실재계와의 만남은 직접적이지 않고 인식되기도 어려우며 다만 그 효과로 감지할 수 있을 뿐인데, 문제는 이 ‘감지’를 억압할 경우 주체의 소외는 더 심화되며 소통의 왜곡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소통에 있어서 실재계적인 감지를 억압하지 않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라캉 또한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가졌던 테크닉적 의미에서의 변증술, 문법, 언어 미학의 최고봉으로서의 시학을 언급하면서, ‘이 시학은 이제 어둠 속에 방치해 온 재담의 기법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15)</sup> 여기서 ‘재담’은 전통적인 수사학과 시학에 기반한 상징계적 소통에 포함되지 못했던 담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상징계적 소통의 의의와 한계를 살피면서 이에 대해 성찰의 경험을 제공하는 ‘말걸기(address)’로서의 인터뷰 다큐멘터리<sup>16)</sup> 제

---

서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적인 차원을 아우르는 글쓰기 교육에 대한 논문도 찾아볼 수 있다. 한귀은은 학습자가 보이는 다양한 증상이 억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수용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차적 주체화를 위한 ‘증환으로서의 글쓰기’를 제시하였다 (한귀은, 「글쓰기 교육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함의」, 『현대문학의 연구』 제82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4, 433-469쪽).

13) 상상계적·동일화는 유대와 공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윤하나, 김상호, 「욕망을 추동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거리와 혐오의 일상화」, 『언론과 사회』 제26권 1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8, 5-33쪽.)

14) 실재계에 접촉하게 되면 외상을 남기고 주체는 파괴되어 버린다(슬라보예 지젝, 『진짜 눈물의 공포』, 오영숙 외 역, 울력, 2004, 336쪽).

15) 자크 라캉, 조형준 외 역, 앞의 책, 338쪽.

작에 관해 논의코자 한다. ‘말걸기’는 라캉을 철학적·정신분석학적으로 비판하고 재해석한 주디스 버틀러의 개념으로 상징계를 넘어서는 윤리적 소통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그리고 인터뷰 다큐는 이러한 말걸기를 실험할 수 있는 교육적 매개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이러한 말걸기로서의 인터뷰 다큐의 가능성을 대학생 참여자들의 활동을 통해 가늠해 보고, 나아가 제작된 작품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해 봄으로써 이 논의를 더 구체화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소통의 실재계적 측면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여러 교육과 소통의 장에서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인터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봄으로써 말걸기로서의 소통의 중요성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일반인과 공유할 수 있는 말걸기의 실천적 면을 추출하려다 보니 버틀러의 논의를 단순화한 측면이 있다. 또한 말걸기와 실재계적인 징후에 대한 해석에 집중하기 위해 하나의 작품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작품의 해석도 주관적인 면이 없지 않다. 교수자와 연구자가 일치함으로 인해 객관성은 더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교수자가 추구하는 말걸기로서의 인터뷰 다큐 제작의 방향성 또한 실제 참여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상징계적 억압으로 다가갔을 수도 있다. 이 논문의 이러한 한계는 차후 이와 관련된 더 면밀한 연구들을 통해 점차 새로운 문제제기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16) 이후, ‘인터뷰 다큐’로 표기.

17)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인터뷰 다큐는 ‘시네마 베리테’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인 관찰 다큐나 다큐멘터리 시네마는 객관적 진실을 전제하고 제작된다면 시네마 베리테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객관적인 진실이란 부재하며 다만 영화적 진실만 있을 뿐이라는 관점으로 등장했다. 시네마 베리테에서는 제작자가 은닉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성찰적이고 수행적인 역할을 담당한다(한귀은, 「자아와 삶을 통찰하는 다큐멘터리 만들기 교육」, 『배달말』 제55권, 배달말학회, 2014, 563-587쪽).

## 2. 상징계적 의사소통의 의의와 한계

제도권 교육은 상징체계를 내면화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공동체 교육이나 타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상징계적 규칙을 내면화하는 것이며, 이 상징계적 규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는 개별 주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는 타자적 체계다. 상상계에 머무르던 유아는 타자의 언어를 말하면서 상징계로 진입한다. 언어소통을 통해 인간은 나르시시즘적인 자아에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 이상적 자아를 지향하며 거울단계에 머물러 있던 유아가 상징계적 언어와 규칙을 습득하고 대타자의 호명 속에서 자아이상(ego ideal)을 형성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18)</sup>

그러나 대타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징적 전이의 대상일 뿐이다. 대타자는 ‘안다고 가정된 주체’이며 이는 초자아로 작동한다. 대타자는 ‘진리’가 아니지만, 진리 혹은 유일한 지향점으로 오인되면서 삶을 이끈다. 이것이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방식이다.<sup>19)</sup>

의사소통은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공유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누빔점(point de capiton, quilting point)이 형성되며 이루어진다.<sup>20)</sup> 이 누빔점은 의미화의 무한한 미끄러짐을 멈추게 하면서 소통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낸다. 그러나 이 누빔점은 영속적이지 않다. 누빔점은 욕망과 상황 맥락에 따라 지속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sup>21)</sup>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정

18) 자크 라캉, 『자크 라캉 세미나 11: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맹정현 외 역, 새물결, 2008, 218-219, 313, 389쪽.

19)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이수련 역, 인간사랑, 2012, 56, 235쪽.

20) 자크 라캉, 조현준 외 역, 앞의 책, 948쪽.

21) 김석, 「문자의 불가능성과 전략」, 『프랑스학연구』 제54호, 프랑스학회, 2010,

확하고 완전한 의사소통을 지향하면 할수록 기표와 기의의 일시적 고정점 역할을 하는 누빔점을 모색하게 되고 결국 이 누빔점이 '온전한 소통'이라는 환상으로 이어지면서 주체의 소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상징계적 소통의 성공은 주체의 소외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주체의 소외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소통의 과정에서 상상계적 동일시로 퇴행하는 것이다. '나'의 말이 상대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라캉에 의하면 상상계적 자기 동일시이다. 완벽하게 자신의 의사가 전달되었다는 믿음은 타자성을 삭제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식은 상상계적 퇴행일 뿐이며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실재계적 응시를 인지하는 것이다. 실재는 언어화·상징화될 수 없다. 실재계는 상징계의 틈이지만 드러나지 않으며 상징계에 통합되지도 않는다. 상징화를 넘어서는 외재성이 바로 실재인 것이다.<sup>22)</sup> 소통은 상징화가 불가능한 실재계에 대한 감지와 함께 이루어질 때 주체의 소외를 최소화하고 윤리적 소통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실재는 그 자체로는 상징화되지 않을뿐더러, 자신을 상징화하려는 모든 시도들의 실패 속에서 보여진다면,<sup>23)</sup> 소통은 소통의 실패를 수용하는 기반 위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종결되지 못하는 대화를 두고 무조건 의사소통의 실패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고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적절한 이득과 보상을 취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징계적 소통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주체에게 '증상'이 남을 수 있다. 상징

---

261-262쪽.

22) 야니 스타브라카키스, 『라캉과 정치』, 이병주 역, 은행나무, 2006, 175쪽.

23) 슬라보예 지젝, 『환상의 돌림병』, 김종주 역, 인간사랑, 2002, 217쪽.



계적 소통 과정에서 배제된 것이 실재로서의 증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sup>24)</sup> 증상은 무의식적 욕망과 외상에 관한 암호화된 메시지이다. 욕망을 억압하거나 의미의 봉합작용에 포섭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증상은 주체에게 환멸과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이 증상은 주체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주체에겐 또 다른 환상이 필요하게 된다. 자신의 결여를 채우고 증상을 덮기 위한 또 다른 대상a(objet petit a)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대상a는 진정한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원인이므로 욕망의 환유는 끝이 없다.<sup>25)</sup> 또한 대상a는 자기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이므로 주체의 소외는 더 심화된다. 정확한 의사소통을 강조하면 할수록 주체의 소외는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주체의 탄생은 유예되는 것이다.

현재의 소통 문화가 직면한 문제는 상징계의 틈에서 발생하는 증상을 수용하고 해석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소통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상징계적 소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소통에서 배제된, 그럼으로써 소외된 주체에 대한 복원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24)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역, 앞의 책, 128쪽.

25) 대상a의 환유는 ‘오토마톤’ 개념과 연결된다. 오토마톤은 기호들의 회귀, 재귀, 되풀이이자 현실이라고 여기는 기호들의 체계다(자크 라캉, 맹정현 역, 앞의 책, 88-89쪽). 따라서 대상a 또한 특정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욕망, 환상 등을 상징하는 자리 표시자, 위치의 개념이 된다. 대상a가 ‘욕망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타자’, ‘실재’, ‘잃어버린 대상’, ‘유사자(semblance)’, ‘잉여 주이상스(surplus jouissance)’, ‘아갈마(agalma)’, ‘황금수(golden number)’, ‘프로이트적 사물(the Freudian Thing)’ 등 많은 다른 용어로 표현되는 것도 이 대상a의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 3. 말걸기로서의 인터뷰 다큐멘터리

라캉 또한 상징계적 소통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히스테리 담론’에 관해 논의하기도 한다. 히스테리 담론은 규범이나 체제에 회의적인 담론이며, 대타자의 명령에 충실한 주인담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담론의 구조이다. 즉 이 히스테리 담론은 ‘가치’를 내재한 실천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주인담론, 대학담론, 분석담론’과 더불어 의미화 과정을 구성하는 ‘구조’로서의 개념인 것이다.<sup>26)</sup>

주디스 버틀러의 ‘말걸기’는 히스테리 담론과 유사하게 시스템이나 규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실패’를 전제로 한 소통의 가능성을 내포하면서 동시에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실제 소통의 현장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 가치중립적인 히스테리 담론 구조에 비해 말걸기는 구체적인 수행적 지침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버틀러에 따르면, 언어를 사용하는 한에서 인간은 폭력적이다. 소통은 ‘언어’라는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서열화하고 판단·평가하는 언어의 강제성과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어에 의해 생각을 당한다.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의 구조와 이데올로기에 포섭됐다는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폭력이 발생한다. 이 폭력에 대한 무지 상태에서 이뤄지는 의사소통은 결국 이 폭력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버틀러에 따르면 기존의 언어 구조에 매몰되지 않고 언어를 의심하는 한에서만 윤리적이 될 수 있다.<sup>27)</sup>

26) 김태숙, 「라캉의 네 가지 담론」,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제6권 1호, 한국라캉과현대정신분석학회, 2004, 40쪽.

27) 주디스 버틀러는 푸코의 관점을 빌려 규범과 담론이 ‘나’와 ‘너’의 시간에 속하지 않음

이러한 전제하에 주체가 취할 수 있는 말걸기의 방식이 ‘재맥락화(recontextualizing)’와 ‘윤리적 신중함’이다. 계급이나 집단 의식을 포함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오염된 언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상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재맥락화는 상처를 입히는 말에 대해 상처를 재실행하지 않고 그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버틀러는 재맥락화만이 폭력을 폭력으로 되돌려주지 않는, 폭력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한다.<sup>28)</sup> 그리고 윤리적 신중함이란 주체의 한계를 이해하고 불확실성 또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sup>29)</sup> 주체에겐 한계가 있고 맥락은 불확실하므로 주체가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타자’에게 있다. 따라서 말걸기는 타자 지향적이며, 이 때문에 말걸기는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에 더 집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터뷰는 듣기에 집중된 대표적 소통 방식이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 다큐 제작이 결합되었을 때 말걸기의 경험이 더 증폭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뷰는 언어와 상징화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므로 인터뷰 자체만으로 말걸기를 실현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말걸기로서의 인터뷰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인터뷰의 한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터뷰에서 인터뷰이와 인터뷰어는 계급이나 지위, 정보량, 의도, 상황에 따라 비대칭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차이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라 해도 ‘인터뷰’라는 상황 자체가 갖는 비대칭성이 있다. 인터뷰어는 준비 과정에서 인터뷰에 대한 ‘의도’를 갖고 ‘예상’을 하게 된다. 인터뷰이가 속한 집단이나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하여 그들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이다.

---

며, 담론은 삶이 아니며, 담론의 시간은 당신의 시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상징계적 언어의 한계를 지적한다(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역, 앞의 책, 65쪽).

28) 주디스 버틀러, 『혐오 발언』, 유민석 역, 알렙, 2016, 85쪽.

29) 타자가 우리의 인간성을 무화시키려 시도하는 동안에도, 타자에 대한 판단을 중지한 채 그를 경험할 때만 윤리적이다(주디스 버틀러, 위의 책, 81, 145쪽).

인터뷰어가 준비한 질문 또한 이런 예측의 산물이다. 이 예측이 인터뷰이에게 억압적 요소, 혹은 버틀러의 용어대로 ‘폭력’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인터뷰이가 우위를 점할 때도 있다. 인터뷰이가 갖는 인터뷰에 대한 저항감 때문에 비대칭성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sup>30)</sup> 인터뷰 과정에서도 이런 비대칭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인터뷰이에게 인터뷰어는 시선의 주체가 된다. 보는 주체는 보여지는 주체에 대해 권력을 갖게 마련이다. 인터뷰이는 인터뷰어의 시선에 노출되어 인터뷰어의 질문에 대해 가장 적절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된다. 인터뷰이가 답변 중에 실제 자신과 자아이상(ego-ideal)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말걸기로서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터뷰 자체의 한계에 대한 성찰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인터뷰어는 인터뷰이가 일상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인터뷰이는 ‘자기 자신을 연기’하고 자신의 이상적 이미지라고 여기는 것을 모방할 수도 있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sup>31)</sup> 가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를 연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터뷰의 이러한 한계는 인터뷰가 다큐와 결합됨으로써 상쇄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모두 취약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상호 취약한 주체라는 것은 인터뷰 다큐 영상을 보게 될 시청자의 시선과도 관련된다. 인터뷰는 단순히 인터뷰이와 인터뷰어라는 이자간 대화가 아니다. 시청자가 있든 없든, 인터뷰이는 그 인터뷰를 보게 될 타자 혹은 대타자를 상정하게 되고 이는 인터뷰어도 마찬가지다. 인터뷰 상황에서 인터뷰이는 인터뷰어와 시청자

30)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간의 비대칭성은 더 다양하고 미묘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31) 슬라보예 지젝, 오영숙 외 역, 앞의 책, 132쪽.

가 원하는 답이 무엇일지 질문을 품게 되고, 따라서 인터뷰 다큐에서 소통은 ‘인터뷰어, 인터뷰이, (잠재적) 시청자’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주체가 존재한다. ‘인터뷰어, 인터뷰이, (잠재적) 시청자’의 관계가 ‘시선(eye)’을 중심으로 한 관계라면, 이들을 응시(gaze)하는 실재계가 존재한다. 응시는 시선과 다르다. 타자의 ‘시선’에 노출된 주체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지만, 알 수 없는 ‘무엇’의 ‘응시’를 감지하는 주체는 그 욕망의 환상성을 횡단하게 된다.<sup>32)</sup> 이렇듯 카메라를 통해 ‘응시’의 측면을 환기시킬 수 있으므로 인터뷰를 다큐의 형식에 담음으로써 실재계적인 측면을 더 견지할 수 있게 된다.<sup>33)</sup>

응시에 대한 인식은 주체를 대타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게 해주며, 소통에 있어서도 대타자적인 규칙과 규범, 이데올로기에 통합되는 명확한 언어만이 아니라 모순적이거나 모호한 표현, 침묵이나 머뭇거림, 비논리적이고 초현실적인 측면,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이야기 또한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실재계적인 응시를 상징한 인터뷰는 탈규범적인 언어를 억압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 인터뷰이의 탈규범적인 언어는 상징계적으로 통합되지 않는 ‘증상(symptom)’이며 이 증상이 해석되면서 소통될 때 말걸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인터뷰는 ‘말걸기’가 되어야 하며, 이 말걸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윤리적 신중함과 재맥락화를 필요로 하는 소통방식이다. 또한 인터뷰 다큐는 ‘인터뷰어, 인터뷰이, (잠재적) 시청자, 실재계’가

32) 슬라보예 지젝, 『삐딱하게 보기』, 김소연 외 역, 시각과 언어, 1995, 134-135쪽.

33) 홍유리는 다큐가 ‘실재’의 징후를 담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홍유리가 말하는 다큐는 ‘객관적 재현’도 ‘허구에 의한 가공물’도 아니며 그 사이에 위치하는 ‘주관화된 재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큐가 의미 있는 것은 그 재현된 결과물에 실재의 징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홍유리, 「다큐멘터리 제작주체의 자기각인과 왜상적 형상화」,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제20권 5호, 한국영상학회, 2020, 17-35쪽).

함께 작동하면서, 상징계적 차원으로 일관되게 통합되지 않는 증상이 중요성을 띠는 소통방식이다. 인터뷰 다큐 제작은 '상징계적인 시선'이 '실재계적인 응시'를 억압하지 않을 때 더 윤리적이고 의미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전제에서 인터뷰이는 카메라를 '거울'처럼 인식하는 상상계적 말하기나, 카메라를 상징계적 시선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억압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말걸기로서의 인터뷰는 대타자의 시선, 그 억압 아래 놓인 것인 아니라, 그로부터 분리되어 실재계적인 응시의 감지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 4. 인터뷰 다큐멘터리 제작 방안 및 작품 해석

##### 4-1. 차시별 활동 및 제작의 주안점

인터뷰 다큐 제작은 사전활동과 본활동, 사후활동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전활동은 말걸기로서의 인터뷰 다큐 및 촬영과 편집에 대한 설명과 참여자들의 토론으로 구성되고, 본 활동은 참여자들의 제작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본 활동에서 메이킹 필름 함께 촬영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던 징후적인 영상을 얻을 수도 있고 구성원의 참여도도 높일 수 있다.<sup>34)</sup> 사후활동에서는 상영회와 함께 참여자들이 작품에 대한 해석을 공유함으로써 말걸기에 대한 태도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차시별로 주요 활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4) 이 메이킹 필름은 또 한 편의 메타다큐멘터리(meta-documentary) 혹은 자전적·성찰적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다. 이 메타다큐멘터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통과 말걸기 방식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다.

차시		활동
1	사전	말걸기로서의 인터뷰 다큐에 대한 설명 및 토론
2	활동	다큐 제작을 위한 촬영과 편집에 대한 설명 및 토론
3	본 활 동	주제 및 인터뷰 대상자 선정, 촬영 및 편집 계획
4		촬영(본 작품과 메이킹 필름 촬영)
5		촬영된 영상에 대한 교수자와 참여자의 공유 <sup>35)</sup>
6		편집
7	사후	상영회
8	활동	해석과 공유

그리고, 이러한 인터뷰 다큐 제작이 더 의미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말걸기로서의 소통이 환기되어야 한다. 각 단계별로, 그리고 전 과정에서 중시되어야 할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별 주안점	전단계 주안점
준비	·관계의 비대칭성 인식	·언어의 이데올로기성 인식 ·말걸기의 실패 수용 ·시선의 한계 수용 ·실재계적 응시 인지 ·윤리적 신중함 ·재맥락화
인터뷰 및 촬영	·상호 취약한 주체임을 인식 ·카메라의 비객관성 인지 ·인터뷰이의 딜레마 이해	
편집	·일관되고 논리적인 편집에 대한 압박 최소화	
감상 해석	·정신분석적 해석 및 토론 ·결핍과 불완전성 수용	

35) 다큐가 완성되고 상영회를 하기 전에 교수자와 제작자가 미리 촬영된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영상에 내재된 실재계적 징후를 함께 해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제작자가 영상을 선별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말걸기에 대한 통찰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바로 이 점 때문에 교수자가 제작자들에게 지나친 관여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 제시된 내용은 상징계적 소통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실재계적 징후와 응시를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리된 것이다. 또한 이런 태도에서 인터뷰 다큐 제작에 있어서의 윤리적 신중함과 재맥락화를 활성화시키는 말걸기가 이루어질 수 있음도 참여자들과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 4-2. 작품에 대한 정신분석적 해석

이 연구는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교육과 ‘매체언어론’ 강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인터뷰 다큐를 제작한 학생들을 비롯한 한국의 20대 청년은 그 어떤 세대보다 타자의 호명을 따라야 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20대 청년은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타자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시기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주체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무작정 거부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주체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통찰하면서 상상계·상징계·실재계의 균형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이런 이유로 20대는 상징계적 삶에 충실하면서도 그 틈을 인지하고 갈등과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소통에 있어서도 비록 의사전달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징계적으로 융합되지 않는 증상을 겪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들이 인터뷰 다큐 제작을 통해 말걸기를 경험하는 것의 의의를 고찰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에서 이 연구가 진행되었다.

36) 라캉은 상상계·상징계·실재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보로메오 고리(Borromean Knot)를 보수하고 새로운 상징계의 직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홍준기, 「후기 라캉과 보로메우스 매듭, 그리고 조이스의 증상」, 『안과밖: 영미문학연구』 제28호, 영미문학연구회, 2010, 214쪽).



참여자는 10명이었으며, 각각 5명씩 두 팀으로 나뉘어 다큐 제작이 이루어졌다. 이 중, 〈지안과 호연〉은 2명의 인터뷰이에 대해<sup>37)</sup>,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이후 〈사랑〉)는 12명의 인터뷰이를 대상으로 ‘욕망’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있었다.<sup>38)</sup> 이 논문에서는 12명의 인터뷰이를 대상으로 하여 좀 더 다각적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 〈사랑〉을 통해 인터뷰 제작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sup>39)</sup> 인터뷰 다큐의 촬영 방식이나 프레임의 특징, 어떤 쇼트를 영상에 포함시키고 어떻게 편집했는지를 살펴보면 인터뷰 다큐 제작의 의의가 더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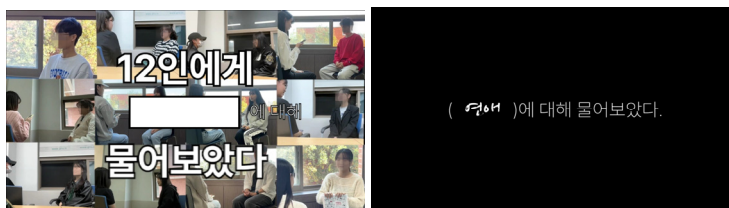
우선, 〈사랑〉에서는 ‘대상a’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었다. 대상a는 욕망의 원인이자 상실한 대상이면서 교체 가능한 것으로 무엇이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사랑〉에서는 그 대상a로서 ‘애착품’, ‘덕질<sup>40)</sup> 연예인’, ‘연애’, ‘짝사랑’을 설정하고 있다. 이 소주제의 대상a로서 위상은 각 쇼트에 나타난 도상기호에서도 드러난다. 〈사랑〉의 오프닝 신에 쓴 ‘□’과 ‘( )’은 ‘자리’의 표지이며, 대상a의 환유적 속성을 나타낸다. ‘□’과 ‘( )’ 안에는 대상a가 될 수 있는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sup>41)</sup>

37) 〈지안과 호연〉의 흥미로운 점은 인터뷰이를 서로 매우 친한 친구 두 명을 선정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두 친구에게 서로의 욕망과 관련된 질문을 함으로써 서로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서로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타자에 대한 자기동일화’로 해석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인터뷰이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의 욕망이 무엇이고 그 욕망이 ‘일반적’인 것임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욕망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그 욕망이 타자의 욕망임을 방증한다.

38) 두 조 모두 인터뷰 제작이 ‘욕망’과 관련된 것이었던 이유는 소통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에서 ‘욕망’이 학생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39) 〈사랑〉은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교육과 ‘김영언, 정지원, 진주환, 이모인, 이화주’ 학생이 제작하였으며, 이들 제작자와 화면에 노출된 인터뷰이들에게는 논문 게재와 관련된 동의와 승인을 받았음을 밝혀 둔다. 그리고 자료 스틸컷은 일부 블러 처리를 하였다.

40) ‘덕질’은 일본어 오타쿠(お宅)에서 유래했으며, 어떤 사람이나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틸컷a

스틸컷b

‘애착품’, ‘덕질 연예인’, ‘연애’<sup>42)</sup>, ‘짝사랑’ 중에서 말걸기 차원에서 좀 더 윤리적 신중함이 필요한 소주제는 ‘연애’와 ‘짝사랑’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도 ‘연애’와 ‘짝사랑’에 초점을 두고, 〈사랑〉을 해석코자 한다.

인터뷰 이전, 제작자<sup>43)</sup>가 ‘연애’에 관해 준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특히 부차적 질문을 미리 준비한 것을 통해 인터뷰어의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제작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질문	부차적 질문
1	연애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다시 그 상황이 와도 연애하게 될까요?
2	연애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나요?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1) 오프닝 신의 두 번째 쇼트, ‘12인에게 □ 물어보았다’의 ‘□’ 위치에는 ‘애착품, 덕질 연예인, 연애, 짝사랑’이 들어간다(스틸컷a). 소주제를 드러내는 방식도 처음에는 ‘( )’가 나오고 그 ‘( )’의 자리에 ‘연애’와 ‘짝사랑’이라는 기표가 찍힌다(스틸컷b).

42) 참여자들이 ‘사랑’이 아니라, ‘연애’(스틸컷b)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터뷰이의 심리적 부담감, 인터뷰이가 사랑의 이상적 모델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라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 인터뷰 상황에서는 ‘사랑’과 ‘연애’를 병행해서 쓰고 있었다.

43) 이 논문에서는 인터뷰 다큐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해 ‘참여자’, ‘제작자’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되, 작품 제작 과정에서의 주체는 ‘제작자’, 사전·사후 활동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참여자’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3	연애하며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이 사랑이 끝나고 상처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사랑을 시작할 생각이 있나요?
		헤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나는 사랑을 위해 이것까지 해 봤다 하는 게 있나요?	있다: 그 행동을 나중에 후회할 것 같나요?
		없다: 그 행동이 나에게 가치가 있나요?
5	사랑을 하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경험이 있나요?	연애를 할 때 당신의 모습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6	사랑이 당신을 변화시킨 적 있나요? 어떤 변화였나요?	그 변화에 만족하나요?
		불만족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터뷰는 언어를 통한 대화가 주가 되므로 상징계적 소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사랑>에서도 연애를 통해 얻게 된 것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안정적인 일상,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 등이었다. 자신의 연애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인터뷰이가 상징계에서 불안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런 욕망은 환상이기도 하다. 타자를 통해 결핍을 보충하려는 것은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면서, 타자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환대라기보다는 자아 중심적인 동일화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 동일화는 헤어지게 된 이유와도 연결된다. 헤어진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인터뷰이의 ‘가치관이 안 맞았다’와 같은 답변은 동일화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애의 훼손과 타자성에 대한 거부와 연동돼 있다.

인터뷰이의 답변 중에 동시대 청년의 상황과 맞물리는 지점도 찾을 수

있다. ‘연애를 하면서 잃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돈과 시간을 잃었다’, ‘주체적인 시간을 잃은 것 같다’ 등과 같은 답변이 있었는데, 이는 효율성과 기회비용을 중시하는 성과주체로서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상징계적 욕망은 연애에 대한 학습된 패턴을 따르게 하고, 그것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돈과 시간이 소모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돈과 시간을 지불하면서 사랑을 하는 자기희생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랑을 위해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편견은 사랑에 대한 탐구를 봉쇄하고 이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는 역설을 발생시킨다.

그럼에도 인터뷰이들은 사랑에 대해 상징계적 환상을 넘어서는 측면을 내비치고 있었는데, 이는 ‘지나간 사랑’에 대한 장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인터뷰이의 환상을 가로지르는 듯한 이런 답변은 인터뷰어가 상상계적인 이상화로서의 연애가 아니라 인터뷰이의 성찰과 해석, 서사화에 더 초점을 두고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답변에서 실재계적인 부분이 감지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실재계적인 부분은 상징계적 소통의 균열에서 얼핏 인지되는데, 상징계의 균열은 이별의 상황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헤어진 이유’에 대한 인터뷰이의 답변 중 정신분석학적으로 더욱 유의미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헤어졌을 때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헤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그것도 좋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a). 폭력도 있었고 욕설도 있었고(b) 그게 다 한 사람이었는데 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상처(c)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되게 좋게 헤어졌어요. (침묵) 잃은 건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d). 오히려 제 인생에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되어준 것 같아요. (...) 이전 연애가 좀 안 좋게 헤어졌는데, 제가 집을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나

를 집 밖으로 끌어내 주고.(e) (...) 저의 철없는 모습이나 아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완해주고(f) 좀 많이 알게끔 해주고 많이 깨닫게 해주는 연애였어요.

위 인터뷰이의 담론은 내용상 통합되기 어려운 모순을 품고 있다. 첫 문장부터 역설이 내재돼 있다(a). 폭력과 상처(b,c)에도 불구하고 ‘ 좋게 헤어졌고, 잃은 것은 없다’(d)라는 것도 통합되지 않는 모순적 표현이다. 그러나 이 담론에는 방어기제로서의 상징계적 재구성, 외상에 대한 인지적 협상도 매개돼 있다(e,f). 지나간 사랑과 이별에 대해 합리화와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단순한 봉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터뷰이는 일관된 내용으로 정리하지 않고 마치 진실을 찾아나가는 듯이 머뭇거리며 어렵게 말을 이어나갔는데 이 ‘진실’의 지점을 실제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작자는 이 인터뷰이의 담론의 모순을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의 윤리적 신중함을 암시한다.<sup>44)</sup>

짝사랑에 관한 인터뷰에서도 주목되는 지점이 있다.

짝사랑은 상처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날 바라봐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상처가 생겨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나한테 잘해 주거나 약간 의젓하게 하는 말들, 설레게 하는 말들, 그런 행동이나 말로 다시 상처 위에 새살이 돌아요. 그런데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그 상처가 후벼 파지는? (...) (짝사랑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좋아할 것 같아요, 또 후회하면서.

위 담론에는 사랑의 주이상스(jouissance)가 나타나 있다.<sup>45)</sup> 이 말을

44) 이후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살펴보면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와 사랑을 수용하면서 사랑에 대한 낭만적 환상을 가로지르는 인터뷰이에게 감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 주이상스는 쾌락원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주이상스는 더 이상 쾌락만이 아닌 고통을 수반한 향유(painful pleasure)이다. 라캉에 따르면, 향락은 괴로움이며

하는 인터뷰이는 밝게 웃고 있었는데 이 표정에서도 고통을 동반한 쾌락을 향유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사랑>에서는 이러한 주이상스가 잘 드러나도록 인터뷰이의 표정과 머뭇거림 등을 영상에 담아내었는데, 이 또한 제작자의 말걸기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작사랑의 주이상스가 주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드러난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면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밝고 유쾌하고 사람들과 되게 대화도 잘하고 사회성도 뛰어나고, 그런 면이 좋아서 좋아하게 된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이 예뻐요.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끝나게 된 계기는 너무 힘들어서?

지젝이 'jouissance'의 아나그램 'jouis-sense'(enjoy meaning)를 통해 주이상스가 '의미'를 향유하는 것임을 강조했듯<sup>46)</sup> 위 인터뷰 내용에서는 주체가 작사랑의 대상<sup>a</sup>에 내재되었다고 믿는 어떤 의미를 향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작 그 특질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체는 지속적으로 그에게 내재된 아갈마(agalma)를 탐색·탐미하게 되고<sup>47)</sup> 이 과정에서 주체 또한 변화하게 된다. 위의 인터뷰이는 작사랑을 통해 '인간의 내적인 면, 즉 밝고 유쾌함, 대화의 능력, 사회성' 등에 더 가치를 둘 수 있었을 것이고, '외적인 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듯 했으나 실제로는 '웃는 모습'에 대한 향유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특히 위 인터뷰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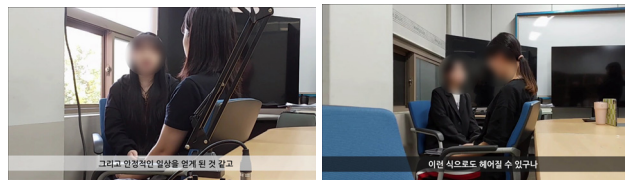
증상으로부터 얻은 역설적 만족, 만족으로부터 얻은 고통이다(딜런 에반스, 『라캉 정신분석 사전』, 김종주 외 역, 인간사랑, 1998, 431-432쪽).

46)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이수련 역, 새물결, 2013, 131쪽.

47) 아갈마는 사랑은 그 대상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명제에서 유래했고(플라톤, 『향연』, 김영범 역, 서해문집, 2008, 121쪽), 라캉의 대상<sup>a</sup> 또한 '아갈마'의 속성을 띤다(브루스 핑크, 『라캉의 주체』, 이성민 역, 도서출판b, 2010, 157쪽).

‘되게’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썼는데, 이 부사의 반복은 자신이 경험했던 주이상스의 강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대화가 가능했던 것 또한 인터뷰이와 인터뷰어 사이에 말걸기의 태도가 내재화 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제작자의 태도는 카메라 및 프레임, 편집 방식 등에서도 암시된다. 일반적인 인터뷰 다큐와 다르게 <사랑>에는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함께 한 프레임에 투샷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스틸컷c,d). 이는 인터뷰이의 ‘참여’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두 사람 모두 타자의 시선과 실재계적 응시의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인터뷰어가 카메라에 더 가깝게 있어서 인터뷰이보다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인터뷰어의 얼굴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통해 인터뷰어의 참여와 성찰이 더 강조되고 있다(스틸컷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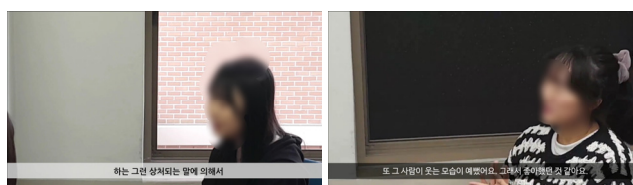


스틸컷c

스틸컷d

인터뷰이 단독 쇼트에도 특징적인 것이 발견된다. 단독 쇼트의 경우 인터뷰이에 대한 바스트 쇼트, 미디엄 쇼트가 대부분이고(스틸컷e,f), 클로즈업 쇼트는 없다. 일반적으로 클로즈업은 ‘얼굴’이라는 기표의 기의를 시청자에게 동화시키려 할 때 사용되는 기법이다. 그러나 ‘말걸기’에서는 이러한 동일화가 불가능하며, 동일화는 오히려 폭력적이라는 입장이다. 동일화를 적극적으로 피하려는 의도는 외설적인 위반이며, 타자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는 그 타자에 대한 환상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sup>48)</sup>

이런 맥락에서 클로즈업이 경계됐다고 볼 수 있다. 클로즈업으로 인해 시청자가 과도한 감정이입이나 동일화를 피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는 인터뷰이가 프레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서도 암시된다. 인터뷰이가 화면의 정중앙이 아니라 프레임 가장자리에 위치함으로써 만들어진 여백은 ‘담론의 여백’이라는 메타포가 되고 이것은 제작자의 윤리적 신중함을 환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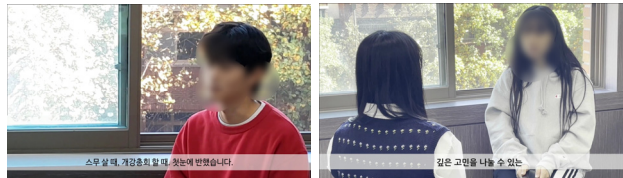
스틸컷e

스틸컷f

우연히 얻게 된 영상의 효과도 있었다. 인터뷰 장소가 창가로 설정되었는데, 이 창문이 영상에서 ‘프레임 속 프레임’의 역할을 하면서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인터뷰이의 심리적 저항감도 약화돼 보이게 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낮에 촬영된 경우엔 태양광으로 인해 화면에 명암 대비가 생기면서 인터뷰이의 표정과 자세에 입체감이 더해졌다(스틸컷 g,h). 카메라 렌즈 노출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해서 얻게 된 저해상도의 연 초점화(soft focusing) 화면은 오히려 탈현실적이어서 모순적이거나 역설적인 담론 및 분위기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했다(스틸컷g,h).

48) 슬라보예 지젝, 오영숙 외 역, 앞의 책, 129쪽.





스틸컷g

스틸컷h

관건은, 우연히 얻게 된 효과 자체가 아니라 그 효과를 발견하고 해석한 것에 있다. 이 효과에 대해 해석하는 과정에서 제작자는 시선에 포착되지 않고 상징계적으로 포섭되지 않는 측면에 대해 더 통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4-3. 참여자 반응 분석

인터뷰 다큐에 대한 제작자(참여자)의 태도와 반응은 상영회뿐만 아니라 메이킹 필름에서도 드러났다. <사랑>의 메이킹 필름은 협업하는 모습을 담은 것과 각자가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를 일인 브이로그(V-log)<sup>49)</sup> 형식으로 편집한 것으로 나뉘었다. 전자는 인터뷰 상황에 대한 동시 분할화면(스틸컷i), 네 대의 카메라로 각각 다른 위치에서 촬영하는 쇼트(스틸컷j), 협업하는 과정에서 서로 토론하는 모습(스틸컷k)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장면들에서는 인터뷰 제작 준비와 토론, 협업의 가치 등이 내레이션으로 전달되었다. 각각 일인 브이로그 형식으로 편집한 쇼트에서는 좀 더 개인적인 성찰이 담겨 있었다(스틸컷l).

49) 브이로그(V-log)는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개인이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편집한 것을 뜻한다.



스틸컷i

스틸컷j



스틸컷k

스틸컷l

메이킹 필름과 상영회 이후 이루어진 해석과 공유 과정에서 참여자의 반응은 ‘인터뷰, 소통, 말걸기’, ‘편집, 재맥락화’, ‘사랑’, ‘미디어, 이데올로기’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편의상 이렇게 구분하였지만 참여자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말걸기’와 소통, 욕망에 대한 것이 전제돼 있었다.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활동과 내용	참여자 반응
인터뷰 소통 말걸기 (A)	a.언어가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b.인터뷰이 중 친한 친구가 있었다. 친구의 대답 중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녀에게 윤리적일 수 있을 것 같다. c.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비대칭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나조차도 편집되는 무엇인 것 같다. d.영상에 다양한 사람의 관점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인터뷰이의 표정이 잘 보이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했다. 영상에서 사랑의 의미가

	<p>퇴색되지 않고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컸다.</p>
<p>편집 재맥락화 (B)</p>	<p>a. 촬영보다 편집에서 고민이 많았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조원들과 많이 토론했다.</p> <p>b. 편집은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편집을 이용해서 보여주고 싶은 면만 드러낸다면 그게 진짜 인터뷰이의 진면모를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양가적인 생각이 들었다.</p> <p>c. 인터뷰이의 머뭇거림과 주저함, 눈빛과 시선의 방향, 목소리의 떨림 등. 이 모든 것들이 한 인간을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가 된다. 흩어져 있는 답변을 편집을 통해 통합한다. 그리고 편집을 통해 인터뷰이의 면모도 드러나고, 또 왜곡되고, 재생산된다.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모가 나에게도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p>
<p>욕망과 사랑 (C)</p>	<p>a. 인터뷰이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하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인지적으로는 명확하게 드러난 인과 관계가, 나에게 는 이유 모를 찻찻함으로 다가왔다.</p> <p>b.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사랑한다면 그것은 대상a를 향한 욕망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이라는 개념은 자리잡지 못한 채 내 안 어딘가를 둥둥 떠돌아다닐 것이다.</p>
<p>미디어 이데올로기 (D)</p>	<p>a. 하루 종일 무작정 매체에 노출돼 살았는데 편집에 주의를 기울이니 다른 것이 보였다.</p> <p>b. 우리가 미디어의 사랑 이야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야기에 통제되는 것이 아닐까.</p> <p>c. 미디어는 환상을 제공하며 대중의 소비 욕망을 자극한다. 대중은 미디어를 통해 더욱더 환상을 강화 받기에 이데올로기는 변화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문다. 따라서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뚫고 항상 질문해야 한다.</p>

위의 반응에서 참여자들은 전과정에서 딜레마를 겪으면서 윤리적으로 신중하려 했음이 드러난다. 그들은 인터뷰이의 진실을 드러내려는 노력이 동시에 내용을 왜곡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A-a,b,c).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이유 또한 인터뷰이를 왜곡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

음도 드러난다(A-d). 이 인식은 자신이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는 말걸기가 실패를 전제로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관점이 내면화되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편집 과정에서도 참여자들은 인터뷰이에 대한 재맥락화를 끊임없이 시도했음이 나타난다(B-a). 진실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음도 인식하고 있으며(B-b), 타자에 대한 환대가 자신에게 부족함도 성찰하고 있다(B-c).

또한 참여자들은 대상a에 대한 욕망의 환상성을 이해하고 있고, 사랑이 자신의 결핍감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욕망을 거부했을 경우 오히려 사랑의 환상성은 지속될 것이라는 역설도 통찰하고 있다(C-a,b). “인지적으로는 명확하게 드러난 인과 관계가, 나에게서는 이유 모를 찻찻함으로 다가왔다”라는 말은 상징계적으로 통합했더라도 남은 잉여가 있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실재계적인 응시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C-a).

인터뷰 다큐 제작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확인된다(D-a,b,c). 참여자들은 미디어의 사랑 이야기를 즐긴다는 환상이 미디어에 통제된 것임을 통찰하고 있다(D-b).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질문을 지속해야 한다는 깨달음에는 소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숙고가 담겨 있다(D-c).

인터뷰 다큐 제작은 그 준비과정에서부터 상영회를 거쳐 피드백하는 과정에까지 모두 ‘말걸기’를 전제한다. 참여자들은 인터뷰이와의 동일화를 경계하고 윤리적 신중함으로 재맥락화를 추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이나 태도도 수정하며 환상을 가로지르면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체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말걸기를 위한 인터뷰 다큐 제작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소통에 대한 윤리적인 태도다. 이 윤리적 태도는 소통이 실패할 수 있고,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타자의 담론을 경청할 것에 대한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참여자들이 상영회를 끝난 이후에 느꼈던 결핍감은 오히려 말걸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상이었을 것이다.

## 5. 결론

“진짜 눈물은 두렵다. 사실 내게 그 눈물을 찍을 권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그럴 때 나는 내 자신이 한계 바깥의 영역에 있음을 알게 된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것이 내가 다큐멘터리로부터 도망친 주된 이유다”<sup>50)</sup>

키에슬롭스키가 다큐멘터리에서 극영화로 넘어간 것은 타자의 내밀한 부분에 허락도 없이 파고 들어가는 외설성 때문이었고, 이는 윤리적 결심이었다.<sup>51)</sup> 다큐멘터리는 진실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과 그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타자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딜레마 위에서 제작된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인터뷰 다큐 제작 교육도 이 딜레마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딜레마는 소통의 딜레마이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소통의 딜레마를 극복할 것이 아니라, 수용할 것으로 인식하면서 ‘실패’를 전제한 소통으로서 ‘말걸기’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징계적 의사소통은 사회적 공동체의 기반이 된다. 소통 과정에서 적절한 누빔점의 형성은 협동을 이끌고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

50) 슬라보예 지젝, 오영숙 외 역, 앞의 책, 128쪽.

51) 슬라보예 지젝, 위의 책, 128-129쪽.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바로 이 점 때문에 집단의 환상과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한 윤리적 폭력 또한 발생된다. 주체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더 정확하고 명확한 언어’를 요구받는다. 모호하고 불분명한 언어는 배제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언어는 계급이나 지위, 제도권 교육의 정도에 따라 차별과 소외의 시스템과 연동한다. 가시적 폭력을 제어하는 언어가 역설적으로 상징적 폭력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소통은 상징화를 기본으로 하지만, 더 윤리적인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상징화되지 않는 부분을 억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소통으로서의 말걸기는 끊임없는 윤리적 신중함과 재맥락화를 요구하며 이는 정확성과 완결성을 지향하는 상징계적 소통이 놓치는 측면이기도 하다.

말걸기로서의 인터뷰 다큐는 인터뷰이와 인터뷰어의 이차관계가 아니라 시선의 주체인 (잠재적) 시청자와 응시의 주체인 실재계의 사자관계이다. 이 관계 속에서 대타자와 이데올로기, 자아이상의 강박을 약화시키고 실재계적 응시의 대상임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다. 참여자들은 인터뷰 다큐 제작을 통해 윤리적 신중함과 재맥락화를 경험할 수 있었고, 타자성을 삭제하지 않는 소통의 중요성을 내면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말하는 주체’는 동시에 ‘소외되는 주체’이다. 상징계적 소통과 주체의 소외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 소통의 실패를 마주할 때, 그리고 그 실패를 사유하는 무기력한 주체에게서 비로소 소통의 윤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인터뷰 다큐멘터리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 논문과 단행본

김민정, 이길형, 「사이월드와 트위터에 나타난 나르시시즘 표현 양상에 대한 연구」, 『브랜 드디자인학연구』 제9권 3호,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1, 237-252쪽.

김석, 「문자의 불가능성과 전략」, 『프랑스학연구』 제54호, 프랑스학회, 2010, 245-268쪽.  
\_\_\_\_, 「선의 윤리와 순수 욕망의 윤리」, 『미학 예술학 연구』 제38집, 한국미학예술학회, 2013, 69-100쪽.

\_\_\_\_, 「주체화와 정신분석의 윤리」, 『문학치료연구』 제4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77-105쪽.

김성민, 「자크 라캉의 욕망이론에서 본 신경증과 목회상담」, 『한국기독교논총』 제47 권 1호, 한국기독교학회, 2006, 243-266쪽.

김영철, 「라캉의 언어사회화론 탐색: ‘아버지의-이름’이 가정교육에 주는 시사점」, 『교 육인류학연구』 제8권 1호, 한국교육인류학회, 2005, 1-38쪽.

김태숙, 「라캉의 네 가지 담론」,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제6권 1호, 한국라캉과현대정 신분석학회, 2004, 39-61쪽.

덜런 에반스, 『라캉 정신분석 사전』, 김종주 외 역, 인간사랑, 1998.

박용우, 「반응의 차이 공유를 통한 시 감상 소통 수행 양상 - 누빔점(Quilting Point) 을 통한 의미 생성을 중심으로 -」, 『새국어교육』 제12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21, 181-214쪽.

박효진, 「텍스트 타자와 독자 주체의 소통 - 동화 읽기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 13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22, 219-245쪽.

브루스 핑크, 『라캉의 주체』, 이성민 역, 도서출판b, 2010.

슬라보예 지젝, 『삐딱하게 보기』, 김소연·유재희 역, 시각과 언어, 1995.

\_\_\_\_\_, 『HOW TO READ 라캉』, 박정수 역, 웅진지식하우스, 2007.

- \_\_\_\_\_,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 주은우 역, 한나래, 1997.
- \_\_\_\_\_,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이수련 역, 인간사랑, 2012.
- \_\_\_\_\_, 『진짜 눈물의 공포』, 오영숙 외 역, 울력, 2004.
- \_\_\_\_\_, 『환상의 돌림병』, 김종주 역, 인간사랑, 2002.
- 야니 스타브라카키스, 『라캉과 정치』, 이병주 역, 은행나무, 2006.
- 유리, 「욕망의 소설교육적 의미 탐구」, 『국어문학』 제64권, 국어문학회, 2017, 213-241쪽.
- 윤하나, 김상호, 「욕망을 추동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거리와 혐오의 일상화」, 『언론과 사회』 제26권 1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8, 5-33쪽.
- 이건형, 「현대사회 소통방식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라캉의 이론을 중심으로」, 『현대정신분석』 제25권 2호,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2023, 39-71쪽.
- 이근영, 「학습자의 욕망 발견을 위한 초등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70호,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21, 171-190쪽.
- 이동성, 「정신분석과 언어: 라캉이론을 중심으로」, 『동서언론』 제15집, 동서언론학회, 2012, 67-89쪽.
- 이인표, 「자기 성찰적 서사의 정신분석을 위한 고찰」, 『문학교육학』 제81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23, 131-165쪽.
- 이진혁, 김현석, 「자기표현의 웹 UI에서 나타나는 라캉의 '상징적 동일시'에 관한 해석」, 『기초조형학연구』 제10권 1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09, 391-399쪽.
- 이철, 「'탈가부장' 시대의 자녀 교육 문제와 아버지의 역할: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제51권,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6, 187-217쪽.
- 이현재, 「디지털 시대의 혐오: 자아상실의 공포와 상상계적 통합」, 『횡단인문학』 제12호, 숙명인문학연구소, 2022, 1-29쪽.
- 자크 라캉, 『에크리』, 조형준 외 역, 새물결, 2019.
- 자크 라캉, 『자크 라캉 세미나 11: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맹정현 외 역, 새물결, 2008.
- 전제웅, 「초등학생의 쓰기 불안 해소를 위한 쓰기 지도 방안 연구-정신분석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제22권, 한국작문학회, 2014, 179-199쪽.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양효실 역, 인간사랑, 2013.

플라톤, 『향연』, 김영범 역, 서해문집, 2008.

주디스 버틀러, 『혐오 발언』, 유민석 역, 알렙, 2016.

한귀은, 「자아와 삶을 통찰하는 다큐멘터리 만들기 교육」, 『배달말』 제55권, 배달말학회, 2014, 563-587쪽.

한귀은, 「글쓰기 교육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함의」, 『현대문학의 연구』 제82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4, 433-469쪽.

홍유리 「다큐멘터리 제작주체의 자기각인과 왜상적 형상화」,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제20권 5호, 한국영상학회, 2020, 17-35쪽.

홍준기, 「후기 라캉과 보로매우스 매듭, 그리고 조이스의 증상」, 『안과밖: 영미문학연구』 제28호, 영미문학연구회, 2010, 199-257쪽.

## Abstract

### A Study on How to Produce an Interview Documentary as 'Address' - Focusing on Psychoanalytical Methods

Han, Gwi-Eun(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From a psychoanalytical perspective, communication can be redefined as a process of forming constant quilting points. This quilting point setting leads to successful Symbolic communication. And the success of this communication is achieved by suppressing the Real. In this paper, the goal was to present 'address' as a practical dimension to complement these limitations of communication, and to demonstrate that this addres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production of an interview documentary.

An interview documentary is not a conversation between an interviewer and an interviewee. Here, it is a place where the (potential) viewer, another subject of 'eye', and the 'something' of the Real, the subject of 'gaze', coexist. 'Eye(Looking)' makes us aim for perfect communication with the ego-ideal, but 'gaze' evokes the Real symptom and opens the possibility of separation from the Other. Because of this, the interview does not proceed smoothly, but this is the driving force that makes 'address' possible. This is because address is a method of communication that requires more ethical caution and recontextualization because it is bound to fail.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internalize the attitude of address through the production of an interview documentary.

Through this study, I hope that the Real aspect of communication will be evoked and that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s 'adress' will be further expanded by producing interview documentaries with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in various educational and communication venues.

'말걸기'로서의 인터뷰 다큐멘터리 제작 방안 연구 - 정신분석학적 방법을 중심으로 / 한귀은 575

(Keywords: Interview Documentary, Address, Psychoanalysis, the Real, Gaze)

■ 논문투고일 : 2024년 5월 12일

논문심사일 : 2024년 6월 13일

수정완료일 : 2024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4년 6월 18일